

朝鮮 文人和 交流한 清朝 學者들의 文字學 研究에 관한 小考

서 한 용
(고려대학교)

1. 서론

河永三은 『六書策』에서 보이는 朴齊家와 李德懋의 文字觀에 대한 比較』에서 朴齊家와 李德懋에 대해 논하면서 “朝鮮後期實學史에 있어 그들의 思想體系는 後代에 秋史(金正喜, 1786-1856)의 金石學과 茶山(丁若鏞, 1762-1836)의 經學 그리고 伍州(李圭景, 1788-未詳)의 言語學에 影響을 주었다. 이 점 만으로 볼 때, 楚亭과 雅亭 두 사람의 문자觀에 대한 研究는 重要한 學術價値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¹⁾라고 하여 朴齊家와 李德懋(1741-1793)의 문자觀이 후에 秋史의 金石學과 茶山의 經學 그리고 伍州의 언어학에 影響을 주었음을 강조하였다. 河永三의 언급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문자학은 朝鮮後期實學과 經學 그리고 金石學 등과 매우 밀접한 관계

1) “在朝鮮後期實學歷史上, 他們的思想體系影響了後代秋史(金正喜, 1786-1856)之金石學和茶山(丁若鏞, 1762-1836)的經學、伍州(李圭景, 1788-未詳)的語言學, 僅從這一點而言, 對楚亭和雅亭二人的文字觀的研究, 也有其重要的學術價値.”- 河永三, 『六書策』所見朴齊家與李德懋之文字觀比較, 『國際中國學研究』第6輯, 358p.

가 있는데, 이러한 학문은 한중 학술 교류의 측면으로 볼 때 청대 고증학의 영향을 받아 발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全海宗은 『清代學術과 阮堂』에서 “阮堂 金正喜(1786~1856)는 한편에 있어서는 明末 淸初에서 淸 中期에 걸쳐 中國에서 발전한 經世致用的 學 내지는 考證學의 영향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우리 나라에서 開花한 이른바 英正期の 實學의 뒤를 잇고, 또 한편에 있어서 그는 직접 燕行하여 覃溪 翁方綱(1733~1818), 芸臺 阮元(1764~1849)을 비롯한 수많은 淸의 當代 碩學들과 交流하여, 李朝末期의 經學·金石學 그리고 書藝의 大家로서 널리 알려져 있는 바이다.”²⁾라고 하여, 秋史의 經學과 金石學이 중국 고증학의 영향을 받은 것이며, 이것은 翁方綱, 阮元 등의 중국 학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李德懋는 「蟲葉記·麀角解」에서 “麀의 음은 주인데, 『說文』에서 ‘사슴’이라고 하였다. 唐本 『說文』에서는 ‘힘이 세고 한 개의 뿔이 있다.’라고 하였다. 『六書故』에서는 ‘사슴과 비슷한데 크고 그 꼬리로는 먼지떨이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였다. 陸佃은 ‘사슴 중의 큰 놈을 麀라 하는데, 못 사슴들이 주를 따라다니되 주의 꼬리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간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古談者들이 멋대로 한 말이다. 近世의 祝德麟이 저술한 『悅親樓集』³⁾에서 ‘臣이 삼가 상고해 보건대, 鹿屬에 소속된 것들이 매우 많습니다. 『爾雅』에서 麀·麀·麀를 麀屬으로 하였고, 麀·麀·麀를 鹿屬으로 하였는데, 오직 麀만이 許慎의 『說文』과 陸佃의 『埤雅』에 보입니다. 麀는 鹿屬이고, 麀도 麀屬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⁴⁾라고 하여 當代 祝德麟이 『爾雅』와 『說文』등을 인용해 고증한 내용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祝德麟의 『悅

2) 全海宗 著, 『清代學術과 阮堂』 『韓中關係史研究』, 一潮閣, 1970, 186p.

3) 『悅親樓集』에 대해 “그의 功令 詩賦를 인쇄한 것인데 정유년에 彈素 柳琴이 燕京에서 가지고 왔다. (刻其功令詩賦. 丁酉歲. 柳琴彈素. 自燕中持來.)”의注가 있다.

4) “麀音主, 『說文』麀屬. 唐本 『說文』曰: ‘大力一角.’ 『六書故』: ‘似鹿而大, 尾可爲拂辟麀.’ 陸佃曰: ‘鹿大者曰麀, 羣鹿隨之, 視麀尾所轉而往.’ 古談者, 揮焉. 近世祝德麟著 『悅親樓集』曰: ‘臣謹按鹿屬甚繁. 其見於 『爾雅』者, 麀·麀·麀爲麀屬, 麀·麀·麀爲鹿屬. 惟麀獨見於許慎之 『說文』, 陸佃之 『埤雅』. 夫麀鹿屬, 麀又麀屬. ……」 [蟲葉記·麀角解]

『親樓集』은 柳琴이 燕京에서 가지고 온 것인데, 이를 통해 李德懋가 當代 중국 학자의 설명을 참고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淸代 한중 교류를 통해 중국의 문자학자가 朝鮮 文人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것에 주목하고 한중 문자학 교류에 대한 연구의 시작으로 당대 朝鮮 文人과 交流한 淸代 學者들을 조사하여 그들의 문자학에 관한 연구 성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II. 朝鮮 文人과 交流한 중국 학자

한중 인물 교류에 관해 이미 많은 연구가 되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한중 인물 교류에 관한 아래의 11편의 기존 연구서에서 소개된 한중 교류 인물을 토대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저서]

- 김한규, 『한중관계사Ⅱ』
- 李春姬, 『19世紀韓·中文學交流 - 李尙迪를 중심으로』
- 김아리, 『홍대용선집 - 우주의 눈으로 세상을 보다』

[논문]

- 權政媛, 「筆談을 통해 살펴본 朝鮮後期 韓·中間 文化交流 樣相」
- 琴知雅, 「朝鮮 申緯의『奏請行卷』研究 - 燕行과 翁方綱과의 文墨緣을 중심으로」
- 朴文烈, 「靑莊館 李德懋의『入燕記』에 관한 研究」
- 이근선, 「冠巖 洪敬謨의 中國文人과의 交遊와 그 樣相 - 2차 연행을 중심으로」
- 林基中, 「燕行錄과 韓國學 研究」, 「朝天錄과 燕行錄의 和答詩」
- 全海宗, 「淸代學術과 阮堂」
- 全美子, 「18世紀韓國游記文學中的中國形象 - 以三種“燕行錄”爲中心」
- 진재교, 「18세기 朝鮮朝와 淸朝 學人の 학술교류 - 洪良浩와 紀昀을 중심으로」

위의 연구서에서 조선 문인과 교류한 중국 문자학자는 21명이 보이는데 그들이 교류한 조선 문인을 교류시기에 따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교류시기	중국학자	조선문인	참고문헌
1768年	朱文藻	洪大容	김아리(129)
1776年 1778年 1790年	李調元	柳琴·朴齊家·柳得恭·李德懋·李書九·徐浩修	김한규(811),全美子(26), 林基中(朝,177~178),朴文烈(380), 李春姬(291)
1790年	洪亮吉	朴齊家·柳得恭	李春姬(297)
1790年	彭元瑞	朴齊家·柳得恭	全海宗(209),李春姬(297)
1790年	錢東垣	朴齊家·柳得恭	全海宗(209),李春姬(297)
1790年	孫星衍	朴齊家·柳得恭	全海宗(209),權政媛(425), 李春姬(297)
1790年	阮元	金正喜·柳得恭·朴齊家	全海宗(209/213),李春姬(297)
1790年 1809年 1812年	翁方綱	金正喜·朴齊家·申緯·柳得恭	全海宗(209~210),琴知雅(143/150), 李春姬(297/308)
1800年	陳鱣	朴齊家·柳得恭	全海宗(209),김한규(811), 林基中(韓,376/朝,190~195)
1809年 1812年 1829年 1834年	葉志銑	申緯·洪敬謨·金正喜	全海宗(209),琴知雅(143), 진재교(93),이군선(7~33), 李春姬(132/308)
1809年 1828年 1831年	阮福	李尙迪·金正喜	李春姬(87/126/308)
1816年 1823年 1828年 1829年 1831년	劉喜海	李尙迪·金魯敬·金命喜· 趙寅永·趙秉龜	김한규(777), 李春姬(87/94/123/127/132)
1828年 1831年	韓韻海	李尙迪	李春姬(87/127)
1829年 1857年	鳴式芬	李尙迪	李春姬(87/132)
1837年 1845年 1857年	陳慶鏞	李尙迪·金正喜·趙寅永· 權敦仁·趙秉鉉·朴思浩	李春姬(87/98/140/155)
1845年 1857年	馮桂芬	李尙迪	李春姬(87/155)
1845年 1857年	何紹基	李尙迪	李春姬(87/155)
1857年 1858年 1859年 1863年	潘祖蔭	李尙迪·朴圭壽·鳴慶錫· 金奭準·申錫愚·徐相雨· 徐衡淳·趙雲周·趙徽林	李春姬(59/87/112/214/233)

이상의 자료만으로 볼 때, 1768年에서 1863년 사이에 조선 문인과 교류한 중국 문자학자는 朱文藻·李調元·洪亮吉·彭元瑞·錢東垣·孫星衍·阮元·翁方綱·陳鱣·葉志銑·阮福·劉喜海·韓韻海·鳴式芬·陳慶鏞·馮桂芬·何紹基·潘祖蔭 등의 18명이 있었으며, 그들과 교류한 조선 문인은 洪大容·柳琴·朴齊家·柳得恭·李德懋·李書九·徐浩修·金正喜·申緯·洪敬謨·李尙迪·金魯敬·金命喜·趙寅永·趙秉龜·權敦仁·趙秉鉉·朴思浩·朴圭壽·鳴慶錫·金奭準·申錫愚·徐相雨·徐衡淳·趙雲周·趙徽林 등의 26명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Ⅲ. 朝鮮 文人과 交流한 中國 학자들의 文字學 연구 성과

중국 학자들의 문자학 연구 성과는 인물 사전에 소개되어 있는 것과 사고전서, 속수사고전서 등에 실려 있는 그들의 문집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아래에서 각 인물에 따라 그들의 문자학 연구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朱文藻 (1735-1806)

浙江人이다. 字는 映湄이고, 號는 朗齋이다. 六書에 정통하였고, 『說文』과 鐘鼎文에 조예가 깊었다. 阮元, 孫星衍과 함께 金石을 고증하여 『山左金石志』를 편찬하였다. 이후 『金石萃編』을 편찬하였다. 汪憲이 편찬한 『說文繫傳考異』는 실제 朱文藻가 校錄한 것이다.⁵⁾ 金石과 관련된 저서로 張員의 『寶雞縣金石志·金石類』에서 『碑錄』의 서명을 더 수록하고 있다. 한편 王筠의 『說文釋例』에 “朱文藻가 베긴 小徐本에 의하면 (依朱文藻鈔小徐本)⁶⁾의 언급이 있는데, 王筠이 朱文藻가 베긴 徐鍇의 『說文解字繫傳』을 참고했음을 알 수 있다.

2. 李調元 (1734-1802)

5) 陳高春, 『中國語文學家辭典』, 河南人民出版社, 1986, 374p.

6) 王筠, 『說文釋例』, 中華書局, 1987, 23p.

四川人이다. 字는 美堂이고, 號는 雨村이다. 저서로 『六書分毫』가 있는데,⁷⁾ 金石과 관련된 저서로 張員의 『寶雞縣金石志·金石類』에서 『蜀碑補記』, 『金石品』, 『金石存』등의 서명을 더 수록하고 있다. 한편 李德懋의 『靑莊館全書·雅亭遺稿·讀李雨村粵東皇華集』에서 ‘李雨村’에 대한 注에 “雨村의 이름은 調元, 자는 羹堂이며 四川 羅江 사람으로 호는 雲龍山人이니 柳彈素와 아는 사이라 그의 『粵東皇華集』과 작은 초상화를 보내왔다. 또 들으니 공은 『爾雅』에 깊은 학식이 있다고 하였는데, 땅콩 한 포를 보내왔다. 12월 초닷새는 羹堂의 생신이어서 彈素가 매양 친지들을 모아 놓고 서쪽을 향하여 술을 뿌리곤 했다.”⁸⁾라고 하여, 李德懋가 이조원에 대해 소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李調元이 『爾雅』에 조예가 깊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洪亮吉 (1746-1809)

江蘇人이다. 字는 君直이고, 號는 北江이다. 音韻, 訓詁에 밝았다. 저서로 『六書轉注錄』이 있는데,⁹⁾ 金石과 관련된 저서로 張員의 『寶雞縣金石志·金石類』에서 『登封縣金石志』의 서명을 더 수록하고 있다. 한편 그의 문집인 『卷施閣集』의 「釋舟」편에서 ‘舟’자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고증한 것을 볼 수 있다.

4. 彭元瑞 (1731-1803)

江西人이다. 字는 掌仍이고, 號는 芸楣이다. 鐘鼎을 잘 鑑別하였다. 저서로 『西清古鑒』, 『寧壽古鑒』, 『金文考文提要』 등이 있다.¹⁰⁾ 續修四庫全書에서 그의 문집 『恩餘堂輯稿』를 수록하고 있는데 문자학에 관한 내용

7) 陳高春, 『中國語文學家辭典』, 河南人民出版社, 1986, 372~373p.

8) “雨村, 名調元, 字羹堂. 四川羅江人, 號雲龍山人, 與柳彈素相識, 寄其『粵東皇華集』及小影. 又聞公深於『爾雅』之學, 另寄落花生一包. 十二月初伍, 爲羹堂生朝, 彈素每集親知, 西向瀝酒.”-李德懋, 『靑莊館全書』, 韓國文集叢刊 257, 民族文化推進會, 2000, 189p.

9) 陳高春, 『中國語文學家辭典』, 河南人民出版社, 1986, 389p.

10) 陳高春, 『中國語文學家辭典』, 河南人民出版社, 1986, 369p.

은 보이지 않는다.

5. 錢東垣 (?-?)

江蘇人이다. 字는 旣勤이다. 金石에 조예가 깊었다. 저서로 『小爾雅校證』, 『豊宮瓦文考』 등이 있다. 11)

6. 孫星衍 (1753-1818)

江蘇人이다. 字는 淵和이고, 號는 伯淵이다. 文字, 音訓, 金石學을 깊이 연구하였다. 저서로 『平津館金石粹編』, 『九經正俗字考』, 『爾雅廣雅訓詁韻編』 등이 있고, 『倉頡篇』 3卷을 補輯하였다. 12) 또한 金石과 관련된 저서로 張員의 『寶雞縣金石志·金石類』에서 『京畿金石考』, 『寘字訪碑錄』(邢澍과 같이 편찬함) 등의 서명을 더 수록하고 있다. 그리고 孫星衍의 문집인 『孫淵如先生全集』에서 그가 段玉裁, 洪亮吉, 鈕樹玉, 翁方綱, 阮元, 嚴可均 등과 교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13) 이러한 사실은 그의 문자학 연구 성과가 당대 여러 학자들과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아 생긴 것임을 짐작할 수 있게 해 준다.

7. 阮元 (1764-1849)

江蘇人이다. 字는 伯元이고, 號는 芸台이다. 文字訓詁에 精通하였는데, 經籍의 訓詁를 통해 고대 吉金, 石刻을 고증하려고 하였다. 저서로 『山左金石略』, 『兩浙金石志』, 『積古齋鐘鼎彝器款識』, 『十三經注疏校刊記』 등이 있는데, 14) 이 외에 金石과 관련된 저서로 張員의 『寶雞縣金石志·金石

11) 陳高春, 『中國語文學家辭典』, 河南人民出版社, 1986, 441~442p.

12) 陳高春, 『中國語文學家辭典』, 河南人民出版社, 1986, 396~397p.

13) 『孫淵如先生全集』, 續修四庫全書 1477, 上海古籍出版社, 1995, 612p(段玉裁), 584/606/614p(洪亮吉), 612p(鈕樹玉), 588/596p(翁方綱), 188/611p(阮元), 623p(嚴可均)

14) 陳高春, 『中國語文學家辭典』, 河南人民出版社, 1986, 415p.

類』에서 『積古齋藏器目』, 『粵東金石略』, 『華山碑考』, 『山左金石志』(畢沅과 같이 편찬함)등의 서명을 더 수록하고 있다. 한편 『擘經室集』에 ‘心’, ‘磬’, ‘且’, ‘矢’, ‘葵’, ‘來’, ‘佞’, ‘敬’ 등의 글자들에 대해 고증한 문장이 보인다.¹⁵⁾

8. 翁方綱 (1733-1818)

北京人이다. 字는 正三이고, 號는 覃溪이다. 金石과 書法에 조예가 깊었다. 저서로 『兩漢金石記』, 『粵東金石略』, 『焦山鼎銘考』등이 있는데,¹⁶⁾ 이 외에 金石과 관련된 저서로 張員의 『寶雞縣金石志·金石類』에서 『兩漢金石記』, 『瘞鶴銘考補』, 『蘇米齋蘭亭考』, 『蘇米齋題跋』 등의 서명을 더 수록하고 있다. 한편 『復初齋文集』에 秋史에게 쓴 편지가 수록되어 있고,¹⁷⁾ 高麗靈通寺大覺國師碑에 대한 글이 보인다.¹⁸⁾

9. 陳鱣 (1753-1817)

浙江人이다. 字는 仲魚이고, 號는 簡莊이다. 저서로 『說文聲繫』, 『說文解字正義』, 『聲類拾存』, 『埤蒼拾存』 등이 있다.¹⁹⁾

10. 葉志銑 (?-?)

湖北人이다. 字는 東卿이다. 金石彝器를 잘 考證하였다. ²⁰⁾ 張員의 『寶

15) 阮元 撰, 『擘經室集』, 續修四庫全書 1478, 上海古籍出版社, 1995, 532p(心), 534p(磬/且), 541p(矢)

阮元 撰, 『擘經室集』, 續修四庫全書 1479, 上海古籍出版社, 1995, 247p(葵), 437p(來), 436p(佞/敬)

16) 陳高春, 『中國語文學家辭典』, 河南人民出版社, 1986, 371p.

17) 翁方綱 撰, 『復初齋文集』, 三十伍卷續修四庫全書 1455, 上海古籍出版社, 1995, 343/447p.

18) 翁方綱 撰, 『復初齋文集』, 三十伍卷續修四庫全書 1455, 上海古籍出版社, 1995, 350p.

19) 陳高春, 『中國語文學家辭典』, 河南人民出版社, 1986, 396p.

雞縣金石志·金石類』에서 그가 『平安館藏器目』, 『高麗碑全文』, 『平安館碑目』를 썼다고 하였다.

11. 阮福 (?-?)

江蘇人이다. 字는 賜卿이고, 號는 喜齋이다. 阮元의 셋째 아들이다. 金石考證을 좋아하였다. 저서로 『滇南古金錄』, 『兩浙金石志補遺』 등이 있다.²¹⁾

12. 劉喜海 (1793-1852)

江蘇人이다. 字는 燕庭이다. 저서로 『金石苑』, 『海東金石苑』, 『嘉應藏器目』, 『長安獲古篇』 등과²²⁾ 『古泉苑』, 『蒼玉洞宋人題名』, 『清愛堂家藏鍾鼎器款識法帖』, 『洛陽存古錄』, 『古彙編』, 『昭陵復古錄』, 『鼓山題名』 등이 있다. 이 중 『海東金石苑』은 朝鮮의 古代碑刻資料를 모은 것이다.²³⁾ 이 외에 張員의 『寶雞縣金石志·金石類』에 그의 저서로 『蒼玉洞題名石刻』, 『論泉絕句』, 『嘉慶藏器目』, 『陝西得碑目』 등이 더 보인다.

13. 韓韻海 (?-?)

陳高春의 『中國語文學家辭典』과 張撝之 등이 主編한 『中國歷代人名大辭典』 그리고 『國學詞典』의 「書名詞典」 등에서 韓韻海에 관해 소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中國書網에서 그의 저서 『墨繡堂藏碑目』이 보인다.²⁴⁾

14. 鳴式芬 (1796-1856)

山東人이다. 字는 子苾이고, 號는 誦孫이다. 金石文을 수집하고 고증하

20) 張撝之 等 主編, 『中國歷代人名大辭典』, 上海古籍出版社, 1999, 405p.

21) 陳高春, 『中國語文學家辭典』, 河南人民出版社, 1986, 464p.

22) 陳高春, 『中國語文學家辭典』, 河南人民出版社, 1986, 464p.

23) SOSO百科, <http://baike.soso.com/> 검색어: ‘劉喜海’

24) <http://copies.sinoshu.com/copy1934385/>

는 것을 좋아하였다. 저서로 『攷古錄』, 『攷古錄金文』, 『金石彙目分編』, 『雙虞壺齋藏器目』 등과²⁵⁾ 『陶嘉書屋鍾鼎彝器款識』, 『海豐鳴氏雙虞壺齋印存』 등이 있다. 특히 그는 『攷古錄』에서 商周에서 元代까지의 金石文 18128種을 수록하였고, 『攷古錄金文』에서 鍾鼎彝器 1329件的 銘文을 考釋하였다.²⁶⁾

15. 陳慶鏞 (1795-1858)

福建人이다. 字는 乾翔이고, 號는 頌南이다. 古器物을 考釋하기를 좋아하여 『籀經堂集』, 『齊侯壘銘通釋』 등을 저술하였다. 이 외의 저서로 『說文古籀考』, 『說文釋』 등이 있으나 간행되지 않았다.²⁷⁾ 한편 『籀經堂類藁』에 ‘必’, ‘掇’, ‘鑿’, ‘豐’ 등의 글자들에 대해 고증한 문장이 보인다.²⁸⁾

16. 馮桂芬 (1809-1874)

江蘇人이다. 字는 林一이고, 號는 景亭이다. 經史에 통달하고, 小學에 조예가 있었다. 저서로 『說文解字段注考正』, 『說文部首歌』 등이 있다.²⁹⁾ 馮桂芬의 문집인 『顯誌堂稿』에 ‘鶉’자에 대해 고증한 문장이 보인다.³⁰⁾

17. 何紹基 (1799-1873)

湖南人이다. 字는 子貞이고, 號는 東洲이다. 小學에 통달하고 『說文』을 정밀하게 연구하였는데, 金石과 篆刻등을 참고하여 그 견해가 탁월하였다.

25) 陳高春, 『中國語文學家辭典』, 河南人民出版社, 1986, 465p.

26) SOSO百科, <http://baike.soso.com/> 검색어: ‘鳴式芬’

27) 陳高春, 『中國語文學家辭典』, 河南人民出版社, 1986, 464p.

28) 陳慶鏞 撰, 『籀經堂類藁』, 續修四庫全書 1522, 上海古籍出版社, 1995, 549p(必), 550p(掇/鑿/豐).

29) 陳高春, 『中國語文學家辭典』, 河南人民出版社, 1986, 477p.

30) 馮桂芬 撰, 『顯誌堂稿』, 續修四庫全書 1535-36, 上海古籍出版社, 1995, 469p.

저서로 『說文段注駁正』이 있다. 31)

18. 潘祖蔭 (1829-1890)

江蘇人이다. 字는 伯寅이고, 號는 鄭庵이다. 金石文字에 관심이 많아 『海東金石錄』, 『重編說文古籀疏證』, 『攀古樓彝器款識』 등을 저술하였다. 32)

이상으로 朝鮮 文人과 교류한 중국 학자들의 문자학 연구 성과들을 살펴 보았는데, 이 중 주요 성과물들을 그 내용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 『說文』에 관한 著作

『說文繫傳考異』(朱文藻), 『說文聲繫』·『說文解字正義』(陳鱣), 『說文古籀考』·『說文釋』(陳慶鏞), 『說文解字段注考正』·『說文部首歌』(馮桂芬), 『說文段注駁正』(何紹基), 『重編說文古籀疏證』(潘祖蔭)

2) 『說文』外 기타 字書에 관한 著作

『小爾雅校證』(錢東垣), 『九經正俗字考』·『爾雅廣雅訓詁韻編』(孫星衍), 『聲類拾存』·『埤蒼拾存』(陳鱣)

3) 六書에 관한 著作

『六書分毫』(李調元), 『六書轉注錄』(洪亮吉),

4) 金石文에 관한 著作

『山左金石志』·『金石萃編』(朱文藻), 『金石品』·『金石存』(李調元), 『登封縣金石志』(洪亮吉), 『西清古鑒』·『寧壽古鑒』·『金文考文提要』(彭元瑞), 『豐宮瓦文考』(錢東垣), 『平津館金石粹編』(孫星衍), 『積古齋鐘鼎彝器款識』(阮元), 『兩漢金石記』·『粵東金石略』·『焦山鼎銘考』(翁

31) 陳高春, 『中國語文學家辭典』, 河南人民出版社, 1986, 467~468p.

32) 陳高春, 『中國語文學家辭典』, 河南人民出版社, 1986, 497p.

方綱), 『溟南古金錄』·『兩浙金石志補遺』(阮福), 『金石苑』·『海東金石苑』(劉喜海), 『揅古錄』·『揅古錄金文』(鳴式芬), 『海東金石錄』·『攀古樓彝器款識』(潘祖蔭)

5) 날글자에 대한 考證

‘舟’(洪亮吉), ‘心’·‘磬’·‘且’·‘矢’·‘葵’·‘來’·‘佞’·‘敬’(阮元), ‘必’·‘掇’·‘鑿’·‘豐’(陳慶鏞)

6) 기타

『十三經注疏校刊記』(阮元)

이상의 著作을 살펴보면, 金石文에 대한 연구 성과가 가장 많고, 『說文』, 『說文』 외의 기타 字書, 六書의 순으로 그 연구 성과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洪亮吉의 ‘舟’자에 대한 考證과 阮元의 ‘心’·‘磬’·‘且’·‘矢’·‘葵’·‘來’·‘佞’·‘敬’ 등의 글자에 대한 考證, 陳慶鏞의 ‘必’·‘掇’·‘鑿’·‘豐’ 등의 글자에 대한 考證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劉喜海의 『海東金石苑』³³⁾과 潘祖蔭의 『海東金石錄』은 朝鮮의 金石文을 기록한 것으로 한중 문자학의 교류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있다.

胡樸安의 『中國文字學史』와 陳秉新·黃德寬의 『漢語文字學史』에서 는 이상의 諸學者들 중 阮元·鳴式芬·馮桂芬 세 사람에 대해서만 그 연구 성과를 소개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33) 金愛英은 『定稿本「海東金石苑」文字 研究 - 卷1~卷4를 중심으로』(『中語中文學』第41輯, 54p)에서 『海東金石苑』의 학술적 가치에 대해 “『海東金石苑』은 당시 燕京에 使臣으로 갔던 朝鮮의 학자들(金正喜(1786~1856(正祖 10~哲宗 7))·趙寅永(1782~1850(正祖 6~哲宗 1))·洪奭周(1774~1842(英祖 50~憲宗 8))·李尙迪(1804~1865(純祖 4~高宗 2))) 등)로부터 증정 받은 자료를 정리 편찬하였기 때문에, 古代 韓中 學術交流의 중요한 實物遺産이라는 점에도 중요한 의의가 있다. 그 외에 『海東金石苑』은 기존의 史書에 누락된 역사적 史實에 대한 매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여 역사 연구에 있어서도 매우 귀중한 자료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라고 평하였다.

1) 阮元

“阮元의 『積古齋鐘鼎彝器款識』는 經典과 歷史를 結合해서 銘文을 考釋하였으며, 책의 앞부분에 『商周銅器說』을 添附하여 古代 青銅器 銘文의 歷史적인 價値에 대해 ‘그 重要성이 九經과 같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卓識이라고 할 수 있다. 阮元은 當時 經學의 大家이면서 또 그 자신이 높은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金文으로써 經學과 小學을 연구해야 한다는 그의 積極적인 主張은 影響力이 자못 컸다. 그리고 그의 책이 『黃清經解』에 수록된 이후로 青銅器 銘文 연구의 유행을 촉진시켰다. 하지만 古文字學의 角度에서 評價할 때 그의 文字 考釋 水準은 宋나라 사람들보다 나았다고 할 수 없으며, 잘 풀이된 뜻이 몇 개 되지 않았고, 오류가 많았다. 예를 들어 ‘凡’을 ‘圍’로 考釋하고(『積古』卷八, 第8頁, 散氏盤) ‘旃’를 ‘子’가 ‘旃’를 잡고 있는 것으로 考釋하였는데, (『積古』卷一, 23頁, 子執旃盤), 정말이지 글자의 자형만을 보고서 뜻을 풀이한 것으로 과학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³⁴⁾

2) 鳴式芬

“鳴式芬의 『攔古錄金文』은 『積古齋鐘鼎彝器款識』와 『筠清館金文』의 뒤에 나왔기 때문에, 商周시대의 青銅器 銘文을 1,334점이나 수록하고 있으며, 當時 새로 출토된 青銅器의 대부분이 이 책에 收錄되어 있다. 이 책은 器物의 種類와 銘文의 글자 수에 따라 배열하고 있어서 檢索에 상당히 편리하다. 또 이 책은 많은 부분에서 許瀚(印林)과 徐同柏의 학설을 인용하고 있고, 간혹 朱善旂나 陳介祺 등의 학설을 인용하고 있다. 하지만 자신의

34) “阮元『積古齋鐘鼎彝器款識』, 結合經史考釋銘文, 書前附『商周銅器說』, 稱古銅器銘文的歷史價値‘其重與九經同之’, 可謂卓識. 阮元是當時的經學大師, 又身居高位, 他積極提倡以金文治經學和小學, 影響頗大, 其書刻入『黃清經解』以後, 促使款識之學蔚成風氣. 然從古文字學角度評價, 其考釋文字水平不出宋人之右, 勝義無幾, 紕繆累見. 如釋凡爲圍(『積古』卷八, 第8頁, 散氏盤), 釋旃爲子執旃(『積古』卷一, 23頁, 子執旃盤), 實爲望文生義, 無科學可言.” 陳秉新·黃德寬, 『漢語文字學史』, 安徽教育出版社, 1990, 170p.

독창적인 견해는 비교적 적는데, 책에 수록된 자료가 豊富하고 여러 학설을 채택하고 있어 金文을 학습하는 사람들에게 참고용으로 적당할 뿐이다.”³⁵⁾

3) 馮桂芬

“阮元은 ‘段玉裁는 古今의 뜻에 통달하였는데, 聲讀의 옳고 그름을 밝힘에 먼저 十七部의 音韻表를 만들었다. 또 『說文解字注』 14篇을 지었으니, 文字와 經典을 공부하는 지침서라 할 만하였다. 하지만 智者도 많은 생각을 함에 실수가 있게 마련인데, 하물며 책을 만들었을 때 나이가 이미 70이 다 되어 精力이 衰하여 잘못을 고쳐 바로잡을 수 없었다. 또한 校勘하는 일을 門下 사람들에게 맡겨 종종 原書를 참고하여 校勘하지 못해 잘못을 면하기 어려웠다.’라고 하였는데, 阮元의 말에 따르면 段玉裁 책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段玉裁가 피할 수는 없지만, 校勘하는 일은 마땅히 後人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馮桂芬의 段注에 대한 考正은 이러한 責任을 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馮氏의 책은 모두 段注의 누락 부분과 상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보충 정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例를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段氏는 許慎의 책을 인용함에 있어 대체로 徐鉉本을 爲主로 하면서 간혹 徐鍇本과 기타 책에서 인용하였는데, 그에 대해 밝히지 않은 것을 모두 고증하여 보충하였다. 둘째, 段氏는 책을 인용함에 있어 대체로 卷數와 篇名을 밝히지 않았고 또 三傳을 인용함에 있어 어느 해의 것인지 밝히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모두 고증하여 보충하였다. 셋째, 段氏는 책을 인용하면서 항상 이전 사람들이 인용한 문장을 그대로 적었는데, 간혹 今本과 다르거나, 古本에는 있는데 今本에 없는 경우가 있었다. 또 段氏는 예전에 있었는데 당시 없는 책들에 대해 어느 책에서 인용했는지를 대부분 밝히지 않았는데, 그 출처를 찾아 당시 있던 책을 위주로 하여 바로 잡았다. 넷째, 책을 인용할 때는 문장을 부분적으로

35) “鳴式芬『攷古錄金文』, 出『積古齋鐘鼎彝器款識』和『筠清館金文』之後, 所收商周銅器銘文共1334器, 當時新出銅器, 大半收錄書中. 其書創按器類及銘文字數多少序列之例, 頗便檢索. 書中多引許瀚(印林)‘徐同柏之說, 間亦引朱善旂’陳介祺說, 而較少創見. 其書收羅豐富, 兼採衆說, 適足爲習金文者參考而已.” 陳秉新黃德寬, 『漢語文字學史』, 安徽教育出版社, 1990, 170p.

생략할 수는 있지만 문장을 고쳐서 인용할 수는 없는데, 段氏가 인용한 것 중 고치거나 혹은 생략한 것 중에서 명확하지 않은 것들을 모두 바로 잡았다. 다섯째, 段氏는 책을 인용할 때 一說에 근거하여 ‘某應改作某’라고 하여 고쳤는데, 그 중에서 부적절한 것들을 모두 바로 잡았다. 馮氏의 校正은 段注를 고치거나 내용을 더 보충한 것이 아닌 段氏의 책을 단지 校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馮氏의 校勘은 段氏에게 큰 공을 세운 셈이다. 阮氏가 말한 ‘精力就衰, 不能改正’한 것들을 馮氏가 모두 고쳐 바로잡은 것이고, 阮氏가 말한 ‘門下校讎不能參檢本書’한 것들을 馮氏가 모두 고감한 것이다. 만약 어느 누가 馮氏가 校正한 것들을 일일이 段氏의 책에 附加한다면 讀者들을 매우 편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³⁶⁾

이상 諸學者들의 연구성과에 대해 濮之珍은 『中國語言學史』에서 전혀 서술하지 않았고, 胡樸安은 『中國文字學史』에서 馮桂芬에 대해서만 서술하고, 陳秉新·黃德寬은 『漢語文字學史』에서 阮元和 鳴式芬에 대해서만 서술하였는데, 이는 이들이 漢語文字學史를 바라보는 주안점에 따라 그 서

36) “阮氏元云：‘金壇段懋堂太令，通古今之訓，明聲讀之是非，先成十七部音韻表，又著『說文解字注』十四篇，可謂文字之指歸，肄經之津筏矣。然智者千慮，必有一失。況成書之時，年已七十，精力就衰，不能改正。而校讎之事，又屬之門下，往往不能參檢本書，未免有誤。’据阮氏言，段書誤處，不能爲段氏諱，而參校之事，當是後人之責，而馮桂芬之段注說文考正，即負此種責任者也。馮氏之書，皆所以補正段書之漏畧，其例如下：一曰，段氏用許本文，大率以鉉本爲主，間用錯本及他書所引，其未註明者，今皆攷補。二曰，段氏引書，率不著卷數篇名，及三傳某年，今皆攷補。三曰，段氏引書，輒仍前人引用之文，間與今本不同，或古本有而今本無，或爲古有今佚之書，多不著何書所引。今皆探其所本，一以今有之書爲主，加以訂正。四曰，引書可刪節，不可改竄。凡段氏所引，有改竄者，有節刪而致不明瞭者，今皆訂正。五曰，段氏引書，或據一說，某應改作某，即將所書徑改作某，殊駭人目，今皆訂正。馮氏之攷正，固非匡段訂段，亦非補段申段，直可爲段氏書之校勘者。馮氏之校勘，大有功于段氏。阮氏所謂精力就衰，不能改正者，馮氏悉爲之改正矣。阮氏所謂門下校讎不能參檢本書者，馮氏悉爲之檢矣。如有人將馮氏之所訂正者一一附段氏原書之下，則尤便讀者也。” 胡樸安，『中國文字學史』，商務印書館，1988, 316~318p.

술 대상을 달리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濮之珍은 中國語言學에 주안점을 두어 이들에 대해 서술하지 않았고, 胡樸安은 금석문에 대한 연구보다는 『說文』에 대한 연구에 주안점을 많이 두어 阮元和 鳴式芬에 대해서는 서술하지 않았지만, 馮桂芬에 대해서는 서술한 것이고, 陳秉新·黃德寬은 『說文』보다는 금석문에 좀 더 비중을 두었기 때문에 阮元和 鳴式芬에 대해서만 서술하고 馮桂芬에 대해서는 서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한중 문자학의 교류적 측면에서 문자학사를 서술할 때, 阮元·鳴式芬·馮桂芬을 제외한 朱文藻·李調元·洪亮吉·彭元瑞·錢東垣·孫星衍·翁方綱·陳鱣·葉志銑·阮福·劉喜海·韓韻海·陳慶鏞·何紹基·潘祖蔭 등의 15인에 대해서도 그들의 문자학 연구 성과를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들과 교류한 조선의 洪大容·柳琴·朴齊家·柳得恭·李德懋·李書九·徐浩修·金正喜·申緯·洪敬謨·李尙迪·金魯敬·金命喜·趙寅永·趙秉龜·權敦仁·趙秉鉉·朴思浩·朴圭壽·鳴慶錫·金奭準·申錫愚·徐相雨·徐衡淳·趙雲周·趙徽林 등 26명 제 학자들 중 문자학에 연구 성과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연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IV. 결론

이상으로 清代 朝鮮 文人과 交流한 清代 學者들의 문자학에 관한 연구 성과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清代 學者들의 문자학에 관한 연구 성과로 朱文藻의 『說文繫傳考異』·李調元の 『六書分毫』·洪亮吉의 『六書轉注錄』·彭元瑞의 『西清古鑒』·錢東垣의 『小爾雅校證』·孫星衍의 『九經正俗字考』·阮元の 『積古齋鐘鼎彝器款識』·陳鱣의 『說文聲繫』와 『說文解字正義』·鳴式芬의 『攷古錄』·馮桂芬의 『說文解字段注考正』·何紹基의 『說文段注駁正』·潘祖蔭의 『海東金石錄』 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현재 이러한 저서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중국에서도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중국 문자학에 대한 연구가 주로 清代

說文四大家 등의 『說文』에 대한 연구나 『六書故』·『六書略』 등의 『說文』外 주요 서적 그리고 갑골문 출토 이후 갑골과 금문에 대한 연구에 인력과 관심이 집중된 것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과거 문자학에 대한 연구 성과 역시 朴瑄壽의 『說文解字翼徵』·權丙勳의 『六書尋源』·洪良浩의 『六書經緯』 등의 단독 문자학 저서에 그쳐 있고 그에 대한 현재의 연구 역시 이러한 주요 저서들에 집중되어 있다. 본 연구를 통해 清代 中國 文字學者와 교류한 조선 문인으로 洪大容·柳琴·朴齊家·柳得恭·李德懋·李書九·徐浩修·金正喜·申緯·洪敬謨·李尙迪·金魯敬·金命喜·趙寅永·趙秉龜·權敦仁·趙秉鉉·朴思浩·朴圭壽·鳴慶錫·金奭準·申錫愚·徐相雨·徐衡淳·趙雲周·趙徽林 등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 이러한 문인들이 중국 학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문자학에 남다른 관심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假定하에 앞으로 그들의 개인 문집 등을 조사하여 그들의 문장에서 散見되는 문자학 관련 연구 성과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權政媛, 「筆談을 통해 살펴본 朝鮮後期 韓·中間 文化交流 樣相」, 『연행록연구총서』 5, 학고방, 2006.
- 琴知雅, 「朝鮮 申緯의『奏請行卷』研究 - 燕行과 翁方綱과의 文墨緣을 중심으로」, 『연행록연구총서』 5, 학고방, 2006.
- 김아리 편역, 『홍대용선집 - 우주의 눈으로 세상을 보다』, 돌베개, 2006.
- 金愛英, 「定稿本『海東金石苑文字』研究 - 卷1~卷4를 중심으로」, 『中語中文學』 第41輯, 한국중어중문학회, 2007.
- 김한규 著, 『한중관계사Ⅱ』, 아르케, 2002.
- 朴文烈, 「靑莊館 李德懋의『入燕記』에 관한 研究」, 『연행록연구총서』 5, 학고방,

2006.

- 濮之珍, 『中國語言學史』, 上海古籍出版社, 1990.
- 北京國學時代文化傳播股份有限公司, 「書名詞典」, 『國學詞典』, <http://www.gxbd.com/>
- 孫星衍 撰, 『孫淵如先生全集』, 續修四庫全書 1477, 上海古籍出版社, 1995.
- 翁方綱 撰, 『復初齋文集』, 續修四庫全書 1454-55, 上海古籍出版社, 1995.
- 阮元 撰, 『學經室集』, 續修四庫全書 1478-79, 上海古籍出版社, 1995.
- 이군선, 「冠巖 洪敬謨의 中國文人과의 交遊와 그 樣相 - 2차 연행을 중심으로」, 『연행록연구총서』9, 학고방, 2006.
- 李德懋, 『靑莊館全書』, 韓國文集叢刊 257, 民族文化推進會, 2000.
- _____, 『靑莊館全書』,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itkcdb/mainIndexIframe.jsp>
- _____, 『국역 청장관전서』, 민족문화추진회편, 솔, 1997.
- 李春姬 著, 『19世紀韓·中文學交流 - 李尙迪을 중심으로』, 새문사, 2009.
- 林基中, 「燕行錄과 韓國學 研究」, 『연행록연구총서』 3, 학고방, 2006.
- _____, 「朝天錄과 燕行錄의 和答詩」, 『연행록연구총서』 5, 학고방, 2006.
- 張員 撰, 『寶雞縣金石志』, <http://www.hudong.com/> 검색어: '寶雞縣金石志'
- 張搗之 等 主編, 『中國歷代人名大辭典』, 上海古籍出版社, 1999.
- 全美子, 「18世紀韓國遊記文學中的中國形象 - 以三種“燕行錄”爲中心」, 『연행록연구총서』3, 학고방, 2006.
- 全海宗 著, 「清代學術과 阮堂」, 『韓中關係史研究』, 一潮閣, 1970.
- 陳慶鏞 撰, 『揅經堂類藁』, 續修四庫全書 1522-23, 上海古籍出版社, 1995.
- 陳高春, 『中國語文學家辭典』, 河南人民出版社, 1986.
- 陳秉新·黃德寬, 『漢語文字學史』, 安徽教育出版社, 1990.
- 진재교, 「18세기 朝鮮朝와 淸朝 學人の 학술교류 - 洪良浩와 紀昀을 중심으로」, 『연행록연구총서』 6, 학고방, 2006.
- 彭元瑞 撰, 『思余堂輯稿』, 續修四庫全書 1447, 上海古籍出版社, 1995.
- 馮桂芬 撰, 『顯誌堂稿』, 續修四庫全書 1535-36, 上海古籍出版社, 1995.
- 何紹基 撰, 『東洲草堂文鈔』, 續修四庫全書 1528-29, 上海古籍出版社, 1995.
- 河永三, 「『六書策』所見朴齊家與李德懋之文字觀比較」, 『國際中國學研究』第6輯, 한국중국학회, 2003.
- 許慎 撰, 徐鉉 等 校定, 『說文解字』, 中華書局, 1992.
- 胡樸安, 『中國文字學史』, 商務印書館, 1988, 316-318p.

洪亮吉 撰, 『卷施閣集』, 續修四庫全書 1467, 上海古籍出版社, 1995.

SOSO百科, <http://baike.soso.com/>

中國書網, <http://www.sinoshu.com/>

維基百科, <http://zh.wikipedia.org/>

네이버 백과사전, <http://www.naver.com/>

❖ ABSTRACT

Study on the Chinese graphonomy's exchanges of Qing Dynasty and Joseon Dynasty

Suh, han yong

Zu Wen-Zao(朱文藻), Li Tiao-Yuan(李調元), Hong Liang-Ji(洪亮吉), Peng Yuan-Rui(彭元瑞), Qian Dong-Huan(錢東垣), Sun Xing-Yan(孫星衍), Ruan Yuan(阮元), Chen Zhan(陳鱣), Wu Shi-Fen(鳴式芬), Feng Gui-Fen(馮桂芬), He Shao-Ji(何紹基), Fan Zu-Yin(潘祖蔭) made the contributions to the theoretical construction to the science of Chinese characters in their books 『Shuwenxizhuankao(說文繫傳考異)』, 『Liushufenhao(六書分毫)』, 『Liushuzhuanzhulu(六書轉注錄)』, 『Xiqinggujian(西清古鑿)』, 『Xiaoeryajiaozheng(小爾雅校證)』, 『Jiujingzhengsuzikao(九經正俗字考)』, 『Jiguzhaizhongdingyiqikuanshi(積古齋鐘鼎彝器款識)』, 『Shuwenshengxi(說文聲繫)』, 『Shuwenjiuzizhengyi(說文解字正義)』, 『Jungulu(揀古錄)』, 『Shuwenjiuzizhukaozheng(說文解字段注考正)』, 『Shuowenduanzhubozheng(說文段注駁正)』, 『Haidongjinshilu(海東金石錄)』. They analyzed the rules behind character construction, and tried to find out the nature of Chinese characters,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ese characters, the evolutionary laws of Chinese characters, the characteristic of ancient Chinese characters etc.

Key Words

학술교류, 문자학, 한자, 조선문인, 청대학자

Qing Dynasty, Joseon Dynasty, graphonomy, ideograph, chinese characters

논문접수일: 2011. 10. 21.

심사완료일: 2011. 12. 02.

게재확정일: 2011. 12. 09.